

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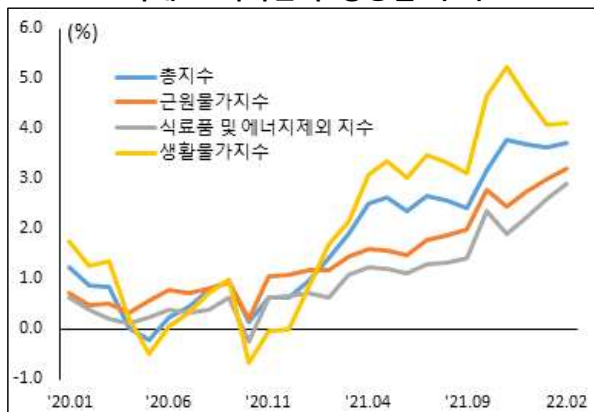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황 현 정 (hhj03@kdb.co.kr)

- ◆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,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수급 불일치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승폭이 확대
- ◆ 물가불안 요인 지속으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

□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증가, '22.2월 전년동월대비 3.7%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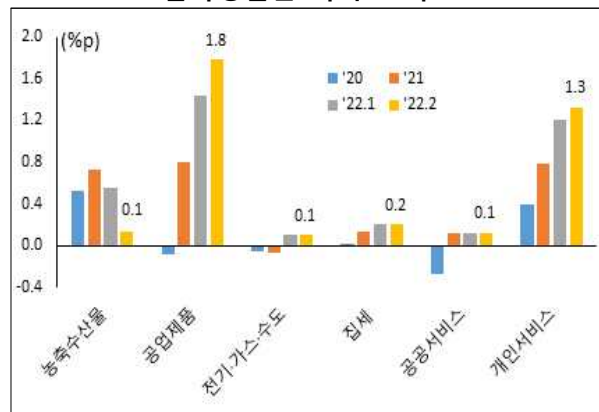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총수요가 위축되며 '20년 1% 이하에 머물던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*은 '21.4월 2%, '21.10월 3%를 상회
 - *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yoy) : ('21.4월) 2.5% → (10월) 3.2% → ('22.2월) 3.7%
 -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물가지수 상승률도 '22.1월 3.0%, 2월 3.2%를 기록하며, '12.1월(3.1%) 이후 처음으로 3%대 기록
 -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생활물가지수*가 '21년 이후 크게 상승하며 체감물가도 높은 수준
 - * 생활물가지수 상승률(yoy) : ('20.10월) △0.7% → ('21.11월) 5.2% → ('22.2월) 4.1%
-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품목성질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공업제품과 외식서비스를 포함한 개인서비스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

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

주 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 자료 : 통계청

품목성질별 기여도 비교



주 : 전기대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
 자료 : 통계청

□ 최근의 물가상승에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,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수급 불일치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

- (원자재 가격 상승)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일치, 공급망 차질과 더불어 러시아·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
 - 유가*는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OPEC과 셰일오일의 공급이 제한되며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급등세
 - * 유가(WTI, 달러/배럴) : ('21년말) 76.4 → ('22.1월말) 89.0 → (2월말) 95.7 → (3.2일) 110.6
 - 러시아·우크라이나 사태는 진행 상황 및 지속 기간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,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- (수요공급 불일치)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공급망 차질문제 지속
 -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'20.4월 72.5까지 하락하였으나, '21.3월 이후 100을 상회
 - * 소비자심리지수 : ('20.4월) 72.5 → ('21.3월) 100.3 → (6월) 110.3 → ('22.2월) 103.1
 - 원자재 수입기업 다수는 '22년에도 코로나19 지속, 미·중 패권 경쟁,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

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



자료 : Bloomberg

'22년 공급망 불안에 대한 인식



주 : 원자재 수입기업 300개사 대상 조사, '22.1월
자료 : 대한상공회의소

□ 물가불안 요인 지속으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

-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공급망 차질 문제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러시아·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에 따라 상당 기간 지속,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
-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추세는 주요국*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
- * '22.1월 OECD 국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7.2%, 미국 7.5% 기록